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2020 스톰킹 마운틴 하이킹

코로나로 외출을 삼가다가 골든클럽 회원 가족과 게스트 등 13명 (리더 홍종만2, 권영대2, 손갑수2, 조달훈2, 주상선 2, 오성, 게스트 고용하 2)은 10월 21일 뉴욕에서 56마일 북쪽에 위치한 Storm King Mountain에서 하이킹을 하며 가을 정취를 흠뻑 느꼈다.

시작할 때에는 구름 덮인 날씨였으나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초반 코스는 약간 가팔랐다. 나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얼마쯤 오르니 속이 메스거리 바위에 앉아 쉬어야 했다. '배낭을 더 가볍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들었다. 산 정상(해발 1,348 ft)에 오르면 허드슨 강이 보이고 탁 트인 멋진 풍광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으나, 산을 휘감은 구름안개는 점심을 먹고 하산할 때까지도 걷히지 않았다. 산 아래는 안개에 싸여 맑은 날에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산 정상의 평평한 바위에 도착한 것이 1시경, 바람이 세지 않은 안쪽으로 일행은 약간 이동하여 산상 오찬을 시작했다. 코로나 때문에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로 했으나, 산에서 끓여서 해먹는 맛을 놓칠 수 없는 산 매니아 두 분(홍종만, 고용하)이 버너와 식재료를 챙겨와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여 회원들에 몸소 털어주며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오후 2시 15분경 하산을 시작했다. 산 오를 때는 발 앞만 보았는데, 내려갈 때는 시야가 넓어져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절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끼에 덮인 갖가지 모양의 바위, 절정에 달한 단풍 나무들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으면서 나는 '집에서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에 이런 멋진 산이 있는데 왜 그동안 좀더 자주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성(법대76)



뉴욕지역동창회 골프대회 성료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조상근)는 10월 7일 (수요일) New Jersey주 Pompton Plains 에 위치한 명문골프장 Sunset Valley Golf Club에서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동창회 활동이 다소 위축이 되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 25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사회적거리와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잘 지켜서 시종 화기에애한 가운데 모처럼 모인 동문들만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켈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Champion에 김태일 (공대), 1등 박준구 (문

리,) 2등 조승자 (가족), 3등에 임도혁 (공대) 그리고 Medalist에 최병우 (공대) 동문이 수상하였다. Closest는 2홀에서 시상했는데 조달훈 (사대), 김창수 (사대)가 수상했고 장타상은 손대홍 (미대)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봄에 열릴 계획이었던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모이지 못한 관계로 장학기금골프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조상근(법대) \$5000 광선섭(공대) \$200 민준기(공대) \$200 김창수(사대) \$500등의 모금이 있었고 특히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여 장학기금으로 \$1000를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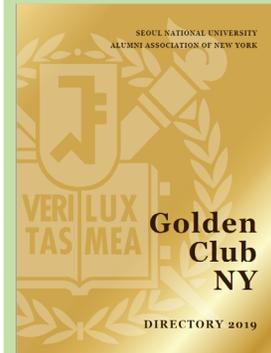
골든클럽 2020년 마지막 골프대회

10월 29일 (목)에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마지막 골프대회가 우천관계로 한주일 늦추어 11월 5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NY Philp Rottela (Haverstraw) Golf Club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약 30명의 회원이 참가예정인 이 골프대회가 즐겁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취소

뉴욕동창회 (회장 조상근)는 10월 23일 오후 3시에 상임이사회와 임원 연석회의를 비디오로 열어서 12월 5일 Fort Lee에 위치한 Double Tree Hotel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었던 송년회를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골든클럽 Directory update



매 2년마다 신규회원 입회, 타지역 이주 또는 사망으로 인한 회원명단 변동을 반영하여 Directory를 수정, 발간합니다. 2021년에는 기존 Full size

directory (안내책자)는 변동 내역을 보완 그리고 Half size 인명록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2019 안내 책자의 사진을 교체하기 원하는 회원과 신규 입회 회원의 정장사진을 11월에 확보, 12월 하순에 design을 확정하고, 1월 중에 손대홍 회원이 서울에서 인쇄하여 2021년 2월 중에 회원 여러분께 우송할 예정입니다. 2019년 Directory를 살펴보고 사진 교체를 원하는 회원과 새로이 Directory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수록하게 되는 신규 회원께서는 정장차림의 사진을 11월 중에 윤현남 회보 편집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보 최우수 기사상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회보에 투고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최우수 기사상”을 선정하고 또 연례 행사로 정립하려 합니다. 선정 절차는 2020년 회보에 기재된 기사 중 12/4일 까지 각 편집위원에게 1편씩 추천받고, 12/11 편집회의에서 논의 후 투표로 선정하여 2021년 회보 1월호에 발표합니다. 수상자에게는 골든클럽 회장님의 감사 편지와 \$100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손경택 회장 회복

지난 2월 예정했던 다리 관절 통증 해소를 위한 척추 Disc 수술이 Covid19 사태로 연기되다가 6월 초에 수술을 마쳤으나, 회복 기간중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박테리아가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어 9월 말 약물치료가 끝나면서, 척추 Disc 수술 결과 다리 관절 통증이 해소되고, 수술 부위에 침투했던 박테리아도 제거되어, 영양보충,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력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골든클럽 입회를 축하합니다

박준구, 최속희 부부

박준구 문리대(영문) 65입학
(M) 201-344-1296
(E) joonkpark@gmail.com
최속희 사대(국문) 65년 입학
(M) 201-978-4794
(E) sukinet@gmail.com
Joon K ans Suki C Park
25 N Ridge Rd
Denville, NJ 07834



남종현 가족회원(손대홍 회원 부인)

(T) 201-388-3787
(E) chonghyun63@gmail.com
Nam Chong-hyun
100 Old Palisade Rd, #1014
Fort Lee, NJ 07024



가을 단풍 Hiking 후기

주상선 (공대73)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날에는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일기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다. 하루 전부터 비 얘기는 사라지고, 아침 안개 후 흐림으로 바뀌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좋아했는데, 산행을 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짙은 산안개가 계속되어 아쉬움이 컸다.

그나마 위안은 12시경 등산로 중간을 지날 때, 20분 정도 안개가 잠깐 걷히었다. 내려다보이는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든 Hudson River 계곡과 몇 채의 원색으로 채색된 집으로 이루어진 강변의 마을 풍경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느껴졌다. 일반 맑은 날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선명한 color에 촉촉함이 묻어나는 듯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오늘의 Storm King Mountain trail은 처음에 오르막 경사가 좀 가파르고, 하행이 좀 완만하다고 했는데, 초보 입장에서는 꽤 힘에 부쳤다. 몇 번 골든클럽 hiking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이 오늘은 등반대장(홍종만 부회장의 별칭)이 많이 변했다는 평가였다. (나이를 먹어 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전에는 앞에서 치고 나가면 뒤에서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중간에 체력을 안배해 휴식 시간도 적절히 주고, 뒤에 쳐진 회원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 확인하기도 하고 어느샌가 다시 제일 앞에서 길을 찾아가면서 동분서주하신다.

등반대장의 배낭이 다른 사람의 서너 배는 되어 야영도 안 하는데, 힘들게 무엇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올라가나 했는데, 정상 근처의 넓은 바위에 자리를 잡고 각자 준비한 점심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해가 되었다. 배낭에는 취사도구(연료 포함)와 전원이 먹을 수 있는 라면과 커피와 이를 끓이는데 필요한 물(꽤 무거운데....)까지 들어 있고, 단체 사진 촬영 장비 등도 있었다.

점심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 후 하산이 시작되면서 약간의 happening이 있었다. 정상 부근 고도 1,300ft에서 주차장 고도 900ft까지 1.5mi를 1시간 정도에 내려오는 것이 계획이었다. 계획된 trail Y는 올라올 때 지나온 좀 가파른 경사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 능선을 따라가다가 좀 완만한 trail B로 경로를 바꾸기로 했다. 출발하여 30분 정도 능선을 따라가는데, 등반대장께서 trail B 분기점에서 안내하면서, 앞에 간 팀과 같이 언덕에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뒤에 등반

대장과 맨 뒤에서 오던 조달훈 선배 포함 5명을 남겨두고, 나는 앞 팀을 쫓아갔다.

그런데, 고도 1,200ft 언덕까지 갔는데도 앞 팀이 보이지 않는다. 외길이라 계속 쫓아가는데, 이후는 내리막길이라 힘도 별로 들지 않아 앞 팀이 쉬지 않고 고도 700ft까지 내려간 것이다. 쫓아가 보니, 권영대 선배께서 GPS 지도를 살펴보니 내려갈수록 주차장에서 멀어짐을 인지하고 돌아갈 길을 찾고 계셨다. GPS로 주차장과 현 위치는 알겠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결론은 일단 온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가다 보면 일행을 만나던지, GPS로 주차장 방향으로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려 올 때는 힘도 별로 들지 않아 10분 만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려니 힘이 들고 시간도 서너 배가 걸렸다. 올라가면서 조승자 회원께 부군인 조달훈 선배가 맨 뒤에서 오고 있었다고 했더니, 등산하려 가면 항상 제일 뒤에서 가면서 뒤쳐지는 동지를 챙긴다고 하셨다. 다행히 고도 1,000ft에서 일행을 다시 만나 출발지인 주차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

주차장에서 산행에서의 피로도 풀고, 주변 산의 단풍도 감상하고, 단체 사진도 찍으면서 산안개로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헤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겪으며

2020년 봄 - 여름

최진영 (문리 55)

한 성당 앞
아무도 없는 넓은 광장
홀로 서있는
시각장애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아베마리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처참한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내가 살고 있는 건물
건너편 길목에서
수년전에 라이자 미넬리가
혼신을 다해 불렀던
'뉴욕, 뉴욕'을
힘차게 부르는
어느 무명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창문마다
베란다마다
모두 서서 손뼉을 치고
소리치며 성원을 보냈고
나도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아낌없이 보내는
'Thank You'
동네마다 줄을 서서 보내는
이 간절한 감사의 마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나의
두 딸과 손주들
의료진에게 매일 무료 식사를
보내고 있는 어느 식당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일당을 받으며 작은 상점에서
일하다 직장을 잃고
아이들 셋과 오직 생존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하는
가난한 엄마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서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생존을 위한 이 투쟁이 길어지
더라도
내 가정과 후손을 위해
인내심과 배려, 사랑의 마음
지켜야 겠습니다.



COVID-19 현황

오순문(사대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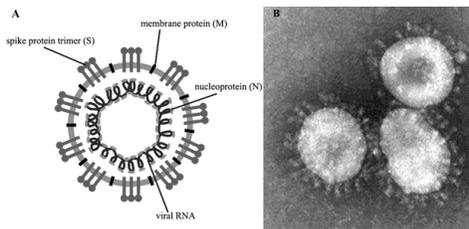
작년 12월말 우한에서 COVID-19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pandemic, social distancing, quarantine, virus, vaccine 등의 생소한 단어들도 많아졌고, virus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걸리면 어찌 되는 것인지 늘 불안했다. 그런데 이제는 끝나가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더 심한 2차 pandemic이 온다 하고 또 그런 와중에도 각자 코로나 사태를 되돌아보게 된다.

Virus는 반드시 숙주인 인간을 통해서만 전염되고, 전염속도도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전염경로도 입과 코, 눈, 손, 등 비교적 명확하고, 모든 유행성 병원균들이 항상 통과하는 잘 알려진 길이다. Corona 방역도 이론적으로는 입과 코를 막고, 손을 씻고, 거기에 소독까지 잘하면 쉽게 막을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만약 corona가 공포영화에서 같이 치사율이 90%쯤 된다면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corona virus는 옮겨갈 숙주를 못 찾아서 결국은 자연 소멸될 것이다. 독사들이 가득 찬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장화를 신고 두꺼운 옷에 장갑을 끼고, 몽둥이가 있어야 되듯이, virus와 싸울 때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는 풍부한 의료자원을 가지고도 큰 피해를 봤고, 또 어느 나라는 방역에 성공했는데, 질병을 대하는 생각의 차이가 아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Corona virus는 용수철 모양의 나선형 구조로 얇은 기름막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는 기름막을 쉽게 녹여 virus내부의 나선형구조를 파괴한다. Virus는 70% 알코올, 0.5% 과산화수소수, 가정용 표백제와 자외선 등에 의해서는 수분내, 공기중에서는 수시간,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2-3일만에 사멸한다. Corona virus는 사람의 세포에 침입해 평균20일간 생존하는데, 8일부터14일 사이에 핵분열을 하면서 사람에 따라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

미국, 유럽, 한국의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각 3%, 5%, 1.5%, 인구 대비로는 10,000명당 미국이 5.8명, 유럽이 2.6명, 한국이

0.06명이다. 물론 8월 5일부터 9월5일까지 한달간 통계는 미국, 유럽 한국의 사망율이 각각2.4%, 1.3%, 0.5%로 괄목할 만한 낮은 수치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런 통계적 숫자들이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긴 해도 무엇 하나 결론을 내리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통계처리 방식이 다르고, 일부국가에서는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성도 보이고, 검사를 안 하면 발생률도 사망률도 0%로 나타나는 구조인데 다, 지금도 인도나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폭발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과속도나 발병률 등은 의료보험이나 고령화분포 등, 사회 구조에 따라 극명하게 명암을 달리했는데, 치사율이 카타르 같은 나라는 0.5%, 미국 같은 나라는 5%대를 넘긴 적이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백신제조와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약 175개의 백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 하며, 그중 러시아와 중국은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미 제품을 출시해서 사용중이고, Pfizer 와 Moderna 같은 미국 회사들은 3만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실험을 10월 중에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백신의 부작용들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인지, 한번 주사로 천연두나 홍역 같이 평생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COVID-19 virus에서는 지금까지 약 70여개의 특징적인 변이가 발생했는데, 어느 한 백신이 변이를 일으킨 모든 COVID-19에 대해 똑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쨌던 내년 초중순쯤이면 백신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약에 대해서는 SARS나 MERS, Ebola, HIV의 약품들을 개발할 때 쓰였던 항바이러스제들이 시도되었으나 직접적으로 큰

효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virus가 세포에 붙는 걸 방해하거나, 세포 안에서 복제를 방해하는 등, 각 단계별로 효과가 입증된 약품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들이 생겼고, 검증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Ebola virus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Remdesivir와 Regeneron사의 신약(REGN COVID-2)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약된 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폐에서 발견되는 투명한 jelly모양의 다당체를 제거해주는 dexamethasone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lorida Hospital의 연구진들은 ICAM오법(vitamin, steroid, 혈액 희석제, 항생제를 복합사용)을 발전시킨 치료법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test이긴 하지만 100%의 완치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수 333명은 거의 같은 기간 독감 및 폐렴 사망자수 24,000명, 교통사고 4,671명, 자살 13,67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노인들이나 다른 기저질환과의 합병증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자본주의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 정지하면 쓰러진다는 말을 하고는 했는데, 사회가 부분적이라도 정지가 되니 해고와 폐업, 부도와 파산, homeless라는 어두운 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불문율이었다면 지금은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 한다. 몇 부릴 일도 비싼 옷 입을 필요도 없이, 기초 생활만으로도 여유 있게 잘 살수 있다는 new normal의 의미도 배웠다. 인류사에서 20세기가 초고속 성장, 과다소비, 광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저성장, 맞춤형 소비, 자연친화적 생산, 축소경제가 key word 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문득 떠오른다. 요즘 Fort Lee에 사슴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번잡한 도시가 좀 더 목가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변화돼 가기를 기원해 본다.

꼬마 뒤뜰 (나의 놀이터) 이야기

조승자 (가족회원)

나는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잡기(카드, 화투 등 내기하는 것은 다 좋아함), 책 읽기, 뜨개질, 옷 만들기, 탁구, 골프, 식물 가꾸기 등.

오늘은 그들 중 조그만 나의 뒤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정원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왔는데, 부모님들이 꽃을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종류의 꽃과 식물을 심었지요. 형제 중에서 내가 가꾸는 것을 좋아해 꽃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꽃씨를 구해다 주시면 뿌리고 매일 들여다보곤 했지요. 아마도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38년을 살았는데, Bayside 집은 나무를 심으면 참 잘 자라서 감나무 여덟 그루, 대추나무 세 그루, 배나무, 석류나무, 자두나무, 포도 등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주어 저희와 지인들을 즐겁게 해 주었어요. 감은 천 개 이상 열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뜰도 좁은 뉴저지로 이사를 왔지요. 남편이 지금도 매우 답답함을 느끼면서 혹시 넓고 관찮은 집이 있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짓기 전에 뒤뜰을 제대로 만들고 좋은 흙으로 채워달라고 해서 울타리가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크지는 않았지만 제법 열려서 뒤뜰을 내다보면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채를 거의 사지 않고 뒤뜰에서 재배하는 데 지금 보니 한 열다섯 가지쯤 심어져 있네요. 남편 말이 저의 부모님께서 다 잘하셨는데 한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해요. 저를 원예학을 시켰더라면 대성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조그만 뒤뜰 농사로 지인들과 나누고 저도 누리니까요. 농사(조그마한 것이지만)를 잘

하기 위해선 그에 따르는 노동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먼저 조그만 땅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겨울에 그림을 그려 어디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을에 흙을 사다 준비를 합니다. 화학비료나 약을 하지 않으니 무엇보다 흙이 중요해요. 노지(露地)에서 잘 나지 않는 것은 삼썬흙에 모판에 심었다가 오월에 밖으로 내보내고, 그 외 것은 오월에 직접 심어요. (케일, 비트, 파, 당근, 상추) 늦은 가을에 깨끗하게 치운 뒤뜰은 peat moss로 덮고 파서 흙과 섞어 줍니다. 이때 벌레가 있으면 밖으로 나온답니다. 봄에 또 야채를 심기전에 garden soil로 덮고 파서 흙과 섞어주고 식물을 심으면, 다른 집 것보다 두 배는 더 크고 잘 자라요.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파종 시기를 말씀드리면, 노지에 제일 먼저 심을 수 있는 건 상추입니다. 4월에 씨를 뿌리면 좀 추워도 씨가 나지요. 상추는 서리가 와도 죽지 않으니

까요. 그래서 좀 일찍 심는 게 좋아요. 상추를 다 먹고 나면 6월초에 상추 심었던 자리에다 오이, 고추, 호박, 가지 등을 심으면 적당합니다. 이것들은 서리를 맞으면 죽으니까요. 오이는 9월 초가 되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잎도 마르고 하니 될수록 밭의 가쪽에 심는 게 좋습니다. 파는 5월에 파종을 하는데 가장 오래 살아있는 야채이며 눈이 와도 싱싱하게 버티지요. 가장 손쉽게 뽑을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심는 게 좋아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 중 식물 기르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사례 등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식물들이 크는 걸 보면 기쁨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흙 나르고 파고 이런 일들이 만만치 않은 데 늘 불평 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민족 역사 뿌리 찾기 (II)

오 성(법대76)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과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권하고 싶다. 이 책은 우리가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동이배달 한민족의 고대역사 뿐 아니라 세계 최초 문명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단고기〉는 우리 민족 고대사를 담은 다섯 권의 책을 모아 펴낸 것으로 평안도 선천 출신인 운초 계연수(桂延壽1864-1920) 선생이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에 독립운동가 흥범도, 오동진의 자금 지원을 받아 목판본 30부를 처음 출간했다. 신라에서 조선까지 1400년에 걸쳐 쓰여진 사서를 합본한 〈환단고기〉는 신라의 고승 안함로(579-640)가 쓴 〈삼성기(三聖記)〉(상), 고려시대 원동종이 쓴 〈삼성기〉(하), 고려의 '수문하시중'(오늘날 국무총리) 이암(1297-1364)이 쓴 〈檀君世記〉, 고려말 범장의 〈北夫餘記〉, 조선시대 왕조실록 찬수관인 이맥(1455-1528)이 쓴 〈太白逸史〉등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단고기〉를 발간한 계연수는 독립군으로 위장한 일제 밀정의 뒷에 걸려 1920년 사지가 절단당해 압록강에 던져졌다. 끊어질 뻔한 〈환단고기〉의 맥을 이어준 인물은 이암과 이맥의 후손인 이유립(1907-1986)이었다. 그는 소장하던 〈환단고기〉 초간본을 잃어버렸으나 전에 책을 빌려갔던 오형기의 필사본(筆寫本)이 다행히 남아있어 그 영인본(影印本)을 1983년 100부 출간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환단고기〉는 안경전이 30년간 역사현장을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2012년 한글 역주 완역본(譯註 完譯本)을 펴냄으로써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환단고기〉가 소중한 것은 전란으로 소실되거나 사대주의자들의 몰이해로 영영 사라질 뻔한 우리 고대사 기록들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고대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역사학자

만 아니라 사대주의, 모화(慕華) 사상에 물든 고려, 조선시대 위정자, 유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작되고 왜곡됐다. 일례로 세조는 1457년 8도 관찰사에게 수서령을 내려 〈고조선비사〉 〈조대기〉 〈삼성밀기〉 〈삼성기〉 〈대변설〉 〈표훈천사〉 등 한민족 고대 사서를 백성들로부터 수거하도록 했다. 수서령은 세조, 예종, 성종 등 3대에 걸쳐 끈질기게 내려졌으며 책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하도록 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찬탈한 세조가 명나라의 지지를 얻어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대주의 모화사상으로 기운 것이 수서령의 배경으로 추측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고대사를 깎아 먹은 예이다. 〈삼국사기〉는 신라 귀족 후손인 유학자 김부식이 1145년 고려 왕(인종)의 명을 받아 썼는데, 사대주의 사관에 입각해 고구려를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던 나라'로 깎아내렸다. 고구려를 계승해 만주 대륙에서 신라와 겨루던 대진국(大震國 발해)과 고조선, 부여 등 상고사는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 반 토막 역사를 전했다. 당시 고려 북방에 강자로 등장한 금나라는 천자국을 선포하고 고려에 사신을 보내 대궐 호칭 등 50여가지 이름을 격을 낮추어 부르라고 요구했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인 1281년경 승려 일연이 개인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기술한 책인데 당시 고려는 원나라 위세에 눌려 황제 칭호를 왕으로 낮추고 왕 이름 앞에 원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충자를 붙이던 시절이었다. 〈삼국유사〉는 배달국(倍達國 초대 환웅 천황에서 18대 환웅까지 1565년 지속)의 환웅을 '환인의 아들'로, 단군조선(초대 단군왕검으로부터 47대 고열가 단



군까지 2096년 지속)의 단군왕검을 환웅과 웅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 묘사하여,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등 거의 7000년의 동이배달민족 역사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 이야기로 축소시켰다.

〈삼국유사〉의 '일웅일호(곰과 호랑이)가 한 동굴에서 살면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귀절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일본 학자들은 신화로 해석했다. 해방 후 75년이 지났지만 식민사학을 답습하는 한국의 강단(講壇)사학자들은 고조선을 아직도 신화로 여긴다. 〈환단고기〉는 '웅호이족'이라 표현하여 곰과 호랑이 동물을 토tem으로 하는 웅족과 호족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연은 중국의〈위서(魏書)〉를 인용해 "2천년 전 단군왕검이 있었으며 아사달에 조선을 세웠다."라고 밝히고, 〈고기〉를 인용해 "옛적에 환국(桓國)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일본의 사학자 이마니시 류는 '환국'을 '환인'으로 변조하여, 인류최초의 나라인 환국을 지워버리고 환국, 배달, 조선에 이르는 한민족 7000년 역사를 날려버렸다.

홍익인간 통치이념으로 환족이 세운 환국은 9족 12연방국이었고, 초대 안과견 환인(환국의 통치자)부터 7세 환인천제까지 3301년 지속된 인류 최초국가라고 〈환단고기〉는 기록하고 있다.

[잃어버린 한민족 역사 뿌리찾기 (II)는 12월호에 계속]

회원 명단 (107명 / 2020-10-26)

강교수	김영덕	성기로	오유섭	이준희	최병우
강에드	김영만	손갑수	오인석	이행순	최수용
강영선	김우영	손경택	우규환	이흥빈	최순채
계동휘	김익성	손대홍/	유무영	임도혁	최준희
곽상준	김인형	손옥화	윤현남	임호순	최진영
곽선섭	김재경	송근숙	이강홍	장동만/	최철용
곽승용	김정필	송웅길/	이국진	고애자	최학주
구달회	김종울	송현자	이 준	정도현	추재욱
권영대	김창수	송학린	이대연	정수일	한영우
권정덕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달훈/	한용오
권태전	김현중	신원철	이범선	조승자	한태진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수호	정해민	허용웅
김광현	민준기	신진식/	이용대	조상근	홍사만
김동건	박기환	이정자	이전구	주상선	홍정표
김문언	박준구/	양인회	이정필	주재양	홍지복
김병순	최속희/	오 성	이종대	진봉일	홍종만/
김병순	박희병	오순문	이종석	천병수	홍예경
김상만	배상규	오용호	이준행	최구진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10-22)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 취소
4월	16 (목)	Opening Golf Outing - 취소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 취소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6월	11 (목)	Golf Outing - 취소
	24 (수)	Picnic, Pizza Party - 취소
7월	9 (목)	Golf Outing - 취소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 취소
8월	6 (목)	Golf Outing - 취소
	20 (목)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 취소
9월	3 (목)	Golf Outing - Wallkill Golf Club 30명 참가
10월	7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Sunset Valley Golf Club
	21 (수)	Hiking -Storm King Mountain 13명 참가
11월	5 (목)	Golf Outing -Havorstraw Golf Club
12월	5 (토)	뉴욕동창회 송년회및 총회 - online으로 대체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96명 / \$9,600 / 2020-10-26)

강에드	김영만	손갑수	오유섭	이준행	진봉일
강교수	김우영	손경택	오인석	이준희	최병우
계동휘	김익성	손대홍	우규환	이행순	최순채
곽상준	김인형	손옥화	윤현남	이흥빈	최준희
곽선섭	김재경	송근숙	이강홍	임도혁	최진영
곽승용	김정필	송웅길	이국진	임호순	최철용
구달회	김종울	송현자	이범선	장동만/	최학주
권영대	김창수	송학린	이대연	고애자	한영우
권정덕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정도현	한용오
권태전	김현중	신원철	이수호	정수일	한태진
김광현	노용면	신진식/	이용대	정해민	허용웅
김동건	민준기	이정자	이전구	조달훈/	홍사만
김문언	박기환	양인회	이정필	조승자	홍정표
김병순	박희병	오 성	이종대	조상근	홍종만/
김상만	배상규	오순문	이종석	주상선	홍예경
김영덕	성기로	오용호	이 준	주재양	홍지복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20명 / \$7,400 / 2020-10-22)

곽선섭 100	성기로 300	이전구 500	최철용 300
곽승용 200	손경택 1,000	이준행 1,000	한태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500	이행순 200	
김광현 1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김동건 200	윤현남 500	정해민 500	
김종울 200	이강홍 300	조상근 300	

위 통계외에 2021년 연회비 (김상만 박준구/최속희 송학린 정수 일 한용오 홍지복), 2021년 후원금 (송학린 1,100)이 선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계동휘 (치대67)
김동건 (사대67)
민준기 (공대59)
박희병 (치대63)
송근숙 (간호66)
신정택 (약대52)
오유섭 (의대58)
최학주 (공대6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